『대순사상논총』 제58집 (2026), pp.57~95
https://doi.org/10.25050/jdaos.2026.58.0.57

외로움의 사회와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

최 치 봉 *

■ 국문요약

21세기 현대 사회는 '외로움의 사회'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물신주의, 공동체 해체라는 세 층위의 상극(相克) 구조가 심화되면서,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 있음을 넘어 타자에게 인정받을 자리와 세계 안에 속할 터전을 상실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세 상극 구조에 각각 대응하는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적 자원을 검토함으로써, 상극의 질서를 상생의 질서로 전환할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은 인간을 성과와 효율의 단위로 환원하여 타인을 공존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에 대해 인존은 능력주의적 인간 평가를 비판하고 존재 자체의 본래적 존엄을 회복시킨다. 물신주의는 인간관계를 교환가치로 환산하여 관계를 수단화하고 자기기만을 심화시킨다. 이에 대해 무자기-정신개벽은 외적 제도 개선을 넘어 양심 회복이라는 내적 전환을 관계 회복의 전제로 제시한다. 공동체 해체는 관계의 단절과 원(冤)·척(慽)의 누적을 통해 개인을 원자화한다. 이에 대해 해원상생·보은상생은 적대적 질서를 호혜적 질서로 전환하여, 원과 척을 해소하고 상호의존과 책임의 윤리를 회복시킨다.

이처럼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물신주의·공동체 해체라는 세 층위의 상극 구조에 대응하여 인존·무자기-정신개벽·상생이라는 대순사

* 대진대학교 교수, E-mail: sangsaeng@daejin.ac.kr

상의 세 관계 철학적 자원이 구조적 대안으로 기능함을 밝힌다. 결국 외로움의 해법은 단순한 연결의 확대가 아니라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다시 이해하고 상극의 질서를 상생의 질서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대순사상은 현대 사회의 외로움 문제에 대해 비판적 진단과 실천적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 외로움의 사회, 대순사상, 관계 철학, 상생 윤리, 인존, 무자기

Ⅰ. 서론
Ⅱ. 외로움의 사회를 생산하는 현대의 상극 구조
Ⅲ.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
Ⅳ. 외로움의 사회에 대한 대순사상의 응답
Ⅴ. 결론

Ⅰ. 서론

‘외로움의 세기’. 노리나 허츠는 지금의 세기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21세기 사회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일시적 심리 상태로만 설명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에서 발생하는 정서이지만,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화, 공동체의 약화, 디지털 매개화, 경쟁 질서의 심화, 그리고 존재 의미의 불안정성과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 현상이다.[1]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 있음(aloneness)과 구분되며,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과도 구별되는 개념으로,[2] 이 세계에서 ‘타자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터전을 잃은 상황’, 내가 이 ‘세상에 쓸모없어진 상황’, 이 세상에 ‘속할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인 감정이다.[3] 즉, 관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주관적이고 고통스러운 정서가 외로움이며, 그 배후에는 인간 존재의

1) Noreena Hertz, *The Lonely Century: How to Restore Human Connection in a World That's Pulling Apart* (New York: Currency, 2021), pp.1-15.
2) Adrian Costache, “On solitude and loneliness in hermeneutical philosophy,” *META: Research in Hermeneutics, Phenomenology, and Practical Philosophy* 5:1 (2013), pp.132-138.
3) 김만권, 『외로움의 습격』 (고양: 혜다, 2024), p.34.

실존적 조건과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가 중층적으로 놓여 있다.[4] 이런 점에서 외로움은 심리학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철학, 사회학, 종교학이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시대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의 세기라는 흐름에 따라 영국은 2018년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ty)'를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제도화하였고,[5] 일본은 2024년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을 시행하여 총리 주도의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6] 이재명 정부 공약에서도 "생애 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약속하고, 영국과 일본의 외로움부 장관과 같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7] 이러한 조치들은 현대 사회의 외로움이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과 개입이 필요함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질서는 인간을 연대의 주체보다 성과의 단위로 환원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협력보다 비교와 평가의 장으로 전환시킨다. 여기에 도시화, 가족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노동의 불안정성,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소통이 중첩되면서 관계는 깊이를 잃고 형식적 접촉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나 이해받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며, 관계 안에 있으나 소속되지 못하고 있다.[8] 그러므로 외로움의 문제를 진단한다

---

4) Ruth Rebecca Tietjen and Rick Anthony Furtak, "Loneliness, Love, and the Limits of Language,"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59:3 (2021), pp.441-447. 외로움을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감각한 외로움(Unfelt Loneliness), 둘째는 실존적 외로움(Existential Loneliness), 셋째는 친밀한 관계 내의 외로움(Loneliness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이다.

5) 《GOV.UK》, UK Government,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onnected-society-a-strategy-for-tackling-loneliness, 2026. 6. 17. 검색).

6) 《内閣府》, 内閣府孤独・孤立対策推進室, 「孤独・孤立の実態把握に関する全国調査(令和6年)調査結果のポイント」 (https://www.cao.go.jp/kodoku_koritsu/torikumi/zenkokuchousa/r6/pdf/tyosakekka_point.pdf, 2026. 6. 17. 검색).

7) 김성아・강예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수시) 2025-07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p.8.

는 것은 결국 현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원자화하고 관계를 파편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묻는 작업이어야 한다.

외로움은 단지 정서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 스마트폰 중독, 공격성, 사회적 혐오, 정치적 분노, 심지어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과도 연동된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로움의 위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외로움과 고립을 전염병 수준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9]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겪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10] 이러한 보고서들을 볼 때, 21세기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외롭거나 고립되어 있으며, 외로움으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이나 교육적 성취, 삶의 질이 파괴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위기이며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 안전망에 있어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철학적 논의 또한 외로움을 단순한 결핍으로만 보지 않는다. 외로움을 사랑과 우정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서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상호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며,[11] 인간이 생과 죽음, 삶의 유한성, 의미 결핍의 '실존적 외로움' 앞에서 경험하는 근원적 조건으로 보기도 한다.[12] 한나 아렌트는 "외로움은 현대 대중

---

8)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San Diego,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3), p.475, "통치 형태로서의 전체주의적 지배는 이러한 고립에 만족하지 않고 사적 생활까지도 파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전혀 속해 있지 않다는 경험, 즉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망적인 경험 중 하나인 외로움에 그 기반을 둔다."; 다이앤 엔스, 『외로움의 책』, 박아람 옮김 (서울: 책사람집, 2025), p.120.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다양한 사회는 외로움을 덜어 줄 수 있지만 외로움을 양산하기도 한다.

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on the Heal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on and Communit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pp.24-30.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 Report of the WHO 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pp.4-5.

11) Ruth Rebecca Tietjen and Rick Anthony Furtak, 앞의 글, pp.436-437, p.448.

이 산업혁명 시작 이래로 겪어온 저주이자 지난 세기말 제국주의의 발흥과 우리 시대의 정치 제도 및 사회적 전통의 붕괴와 함께 급격해진 뿌리 뽑힘(uprootedness) 및 불필요함(superfluousness)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3]고 본다. 이런 논의들이 중요한 이유는 외로움을 단지 치유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존재와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기존의 외로움 연구는 대체로 세 갈래로 전개됐다. 첫째, 외로움을 고독, 고립, 소외와 구분하면서 개념적 정밀화를 시도하는 심리학적 연구 및 철학, 종교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다.[14] 둘째, 청년, 노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 도시 거주자 등 특정 집단의 외로움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이다.[15] 셋째, 상담, 복지, 종교공동체, 사회정책 등을 통해 외로움을 완화하려는 실천적 연구이다.[16]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외로움을 개인 심리의 문제나 복지정책의 사후적 개입 대상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외로움이 어떠한 관계 질서 속에서 구조적으로 생산되는가라는 문제, 다시 말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왜 위기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존재론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특히

---

12) Richard Booth, "Existential Loneliness: The Other Side of the Void,"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ersonal Studies* 16:1 (1997), pp.25-31.

13) Hannah Arendt, 앞의 책, p.475.

14) 서영석・안수정・김현진・고세인,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20), pp.205-247; J. Dosmagambetova, R. Imanzhusip, S. Turarov and U. Aimbetova, "The Problem of Loneliness in Religious Studies and Philosophy," *Eurasi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6:4 (2023), pp.34-41.

15) 이승훈, 「디지털 시대의 외로움, 인문 정신으로 잇기」, 『공공사회연구』 14-1 (2024), pp.237-261; 이정은, 「외로움과 대중 매체 : 미국 사회의 X세대와 MZ 세대의 정치 문화에 대한 고찰」, 『시대와 철학』 36-1 (2025), pp.75-109; 임명성, 「뉴 노멀 시대에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성 요인에 대한 탐구」, 『경영교육연구』 35-5 (2020), pp.59-75; 임윤서, 「AI 시대 청년의 외로움 드러내기 : 포토보이스를 통해 본 질적 탐구」, 『인간・환경・미래』 33 (2024), pp.161-200.

16) 전용호・최경석,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61 (2025), pp.107-133; 이상호・김성옥, 「고립의 시대, 사회적 진단과 불교적 해법」, 『동아시아불교문화』 57 (2023), pp.297-325.

경쟁, 비교, 효율,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대 사회의 상극적 구조가 인간관계를 상호 살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소모와 배제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은 기존 논의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에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적 결핍이나 복지적 결손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관계 질서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청하는 문제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외로움 연구는 철학·심리·복지·디지털 문화의 측면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대순사상 연구는 인간관, 인존, 상생, 무자기-정신개벽 등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양자를 종합하여, 현대 사회의 외로움을 상극 구조의 산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적 응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외로움을 구조적·관계론적으로 해석하고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이 지닌 규범적, 존재론적 함의를 탐색하는 문헌 기반의 이론 연구에 천착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외로움을 신자유주의적 경쟁, 물신주의, 공동체 해체가 낳은 상극 구조의 산물로 파악함으로써, 외로움을 개인의 정서적 결핍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재규정하는 현대 사회 비판의 철학적 지평을 마련하는 데 있다. 둘째, 이러한 상극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순사상의 인존과 상생, 무자기와 정신개벽을 관계 철학의 차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이를 외로움 극복을 위한 종교철학적 자원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셋째, 개인 심리의 치유와 공동체 질서의 재구성을 함께 지향하는 대순사상의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관계 윤리에 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외로움은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위로의 언어를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다시 짜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다. 이 글은 그 가능성을 대순사상에서 탐색하려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Ⅱ. 외로움의 사회를 생산하는 현대의 상극 구조

오늘날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일시적 감정 상태로만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 그 자체라기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인 소속과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서 발생하는 관계적 결핍의 감정이다. 따라서 외로움의 사회란 사람들이 단지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 자체가 인간을 서로에게서 떼어놓고 관계의 지속성과 깊이를 약화시키는 사회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외로움은 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문제이며, 개인 내부의 정서가 아니라 사회 조직 원리의 결과로 읽힐 필요가 있다.[17]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볼 때, 현대 사회가 외로움을 생산하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쟁은 개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경쟁해야 하는 성과 주체로 만들며, 그 결과 인간을 원자화한다. 둘째, 물신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는 인간관계를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효용과 교환의 논리로 환원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것으로 바꾼다. 셋째,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는 가족, 종교, 지역사회와 같은 소속과 보호의 장치를 약화시키면서 근대적 주체를 더욱 자유롭지만 동시에 더욱 불안정한 존재로 만든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이해하기보다 경쟁하는 개인, 소비되는 개인, 불안한 개인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상극 구조를 이룬다.

---

17) Sue E. Williams and Bonnie Braun,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 Private Problem, a Public Issue,”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111:1 (2019), pp.7-8.

1.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과 원자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18]는 자유시장, 자기책임, 선택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체제로 스스로를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자유로운 시민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의 성과를 관리하고 입증해야 하는 자기 기업가적 주체로 재편해 왔다. 이 체제에서 인간은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경쟁적 환경 속에서 자기 효율과 생산성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타인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로 등장하며, 개인은 협력의 관계보다 성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위치 짓게 된다.[19]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외로움은 단순한 우연이나 심리적 부작용이 아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경쟁을 기본 질서로 삼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낳는 구조적 정동(情動)에 가깝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타자와의 연결감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타인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외로움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20] 신자유주의적 사회일수록 인간은 공동체적 유대보다 자기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우선시하도록 요구받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단절과 경쟁의식이 심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단지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경쟁은 직업과 교육을 넘어 인간관계, 자기표현, 심지어 감정 관리의 방식까지 침투해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더 넓은 네트워크를 관리하지만, 그 네트워크는 반드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

18) David Harvey,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2-3.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기업가적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해방하는 것이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강한 사적 소유권,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국가가 창출·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정치경제적 실천 이론이다.

19) Julia C. Becker, Lea Hartwich and S. Alexander Haslam, “Neoliberalism Can Reduce Well-Being by Promoting a Sense of Social Disconnection, Competition, and Loneli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0:3 (2021), p.950.

20) 같은 글, p.962.

지 않는다. 관계는 상호 돌봄과 신뢰의 장이 아니라 정보 획득, 기회 접근, 자기 가치의 입증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바뀌기 쉽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관계를 확대하는 듯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관계를 얕고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며, 인간을 고립된 성과 주체로 재구성한다. 즉,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마저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외로움의 병리적 행동과 부적응적인 대처 기제를 낳는 원인이 된다."[21]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연대 없이 경쟁해야 하는 조건을 보편화했다. 즉, 상대를 이기거나, '극(克)'해야지 자신이 살아남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다. 과거에는 실패와 취약성이 공동체 안에서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실패조차 개인의 무능이나 자기관리 부족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 결과 인간은 외로움의 원인을 사회구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되고, 외로움은 더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된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경쟁은 인간을 서로에게서 떼어놓을 뿐 아니라, 그러한 고립을 개인의 책임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이중의 구조를 형성하게 한 것이다.

2. 물신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

외로움의 사회를 생산하는 두 번째는 물신주의(物神主義)[22]와 '도구적 이성'[23]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가

---

21) Khalid Abdulle, "The Cost of Loneliness in the Pursuit of Neoliberalism," *Carleton Undergraduate Journal of Science* 4:1 (2025), p.49, "Divisive loneliness behaviours and maladaptive coping mechanisms are consequences of the neoliberal commodification of social interactions."

22) 물신주의는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성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넘어 돈·소비·외적 성취 등 물질적 가치를 절대화하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간관계와 존재 의미마저 소유·교환가치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현대적 태도 및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23) Charles Taylor,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5, "도구적 이성이란 주어진 목적에 대해 가장 경제적인 수단의 적용을 계산할 때 원용하는 합리성의 종류를 의미한다. 극대화된 효율성, 즉 최선의 비용 대비 산출 비율이 그것의 성공 척도가 된다."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타인과 사물을 그 자체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효용과 교환가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해진다.[24] 특히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세대들은 부유함에 중요성을 두고, 사회적 결속보다는 개인의 지위와 성공에 초점을 맞춰 정체성을 발달시켜 왔다.[25] 여기서 물신주의는 상품과 시장의 논리가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도록 만들고, 도구적 이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계산하는 합리성을 관계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결국 이 둘의 결합으로 인간관계는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기능적 연결, 상호이익의 교환, 또는 전략적 자원 관리의 형태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나의 목표 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되기 쉽다. 관계는 삶의 근본 조건이라기보다, 관리 가능한 자원이 된다. 친밀성마저도 효율성, 생산성, 교환 가능성의 논리 속에서 평가될 때,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인정과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다. 결국 외로움은 타인과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더라도 그 관계가 인격적이거나 상호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못할 때 심화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상품화하고,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자율성, 성과, 경쟁력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26] 이때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존재라기보다 선택되고 평가되고 소비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나아가 외로움은 단지 관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마저 교환할 수 있는 단위로 느끼

24) 김민수,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의 물화 이론적 성격 해명」, 『철학』 165 (2025), p.79.

25) Khalid Abdulle, 앞의 글, p.53, “As neoliberalism has expanded over the decades, newer generations (who are exposed to online social spaces early in life) are conditioned to place importance on opulence and to develop identities that are less focused on social unity but rather on individual status and success.”

26) 같은 글, pp.54-55.

게 되는 상태 속에서 심화한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기능적 관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관계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는 외로움조차 상품화하는 경향을 보인다.[27] 외로움은 치유 산업, 자기계발 담론, 관계 관리 기술의 형태로 끊임없이 소비되지만, 정작 왜 인간이 점점 더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외로움 산업(loneliness industry)은 개인의 정서적 결핍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데이터화하여 플랫폼 체제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28] 외로움의 원인을 개인의 소통 능력 부족이나 관계 기술의 미숙함으로만 설명하는 한, 관계의 수단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은폐된다. 이 점에서 외로움 산업의 확장은 외로움의 해결이라기보다, 외로움이 하나의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소비 문화를 비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틀을 다시 묻는 일이다. 인간이 효용 이전에 존엄한 존재이며, 관계가 교환 이전에 상호 인정과 형성의 장이라는 인식이 회복되지 않는 한, 외로움은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제도 속에서 계속 다른 얼굴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물신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비판하는 일은 관계를 수단이 아닌 삶의 근본 질서로 다시 사유하려는 철학적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로움 문제에 대한 철학적 응답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 “관계를 어떤 질서 속에서 회복할 것인가?”, “공동체를 어떠한 윤리 위에서 다시 구성할 것인가?”로 물어져야 한다.

---

27) Lauren Dwyer, “Loneliness by Design: The Structural Logic of Isolation in Engagement-Driven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2:9 (2025), p.10.

28) 이완정 · 박규상, 『외로움을 소비하는 사회』 (고양: 더디퍼런스, 2025), pp.49-59.

3.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와 근대적 주체의 불안

현대인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은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이다. 가족, 종교, 지역사회는 오랫동안 개인에게 소속감, 역할, 정체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온 핵심적 장치였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는 언제나 해방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억압과 배제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적어도 인간이 완전히 고립된 개인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었다. 그런데 근대화, 도시화, 개인주의의 확산은 이와 같은 공동체의 구조와 기능을 점차 약화해 왔다.[29]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산업화, 저출산, 고령화, 이혼 증가, 1인 가구 확산과 같은 변화 속에서 안정적 생활공동체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삶이 반드시 외로움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1인 가구의 급증과 생활공동체의 약화가 외로움의 구조적 배경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근대화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의 외로움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논의됐다.[30] '가족기능'[31]과 외로움의 관계는

---

29) Keith D. M. Snell, *Spirits of Community: English Senses of Belonging and Loss, 1750-2000*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 pp.241-242.

30)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보도자료, "2024 Stat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2024. 12. 12.) 특히 서울시 1인 가구 조사에서는 외로움 경험 비율 62.1%, 사회적 고립 비율 13.6%가 보고되었다. (박민진・김성아,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2022)) 보건복지부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이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2023년 1.04명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 10. 17.)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 중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임신・출산・장애 등을 제외하고 5.2%이다. 조사 대상 청년 전체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최근 1년 자살생각 경험은 2.9%, 번아웃 경험은 32.2%이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 3. 11.)

31) 가족기능(family function): 가족 집단이 체제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본질적인 활동과 역할을 의미.

경험적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외로움은 증가한다.[32] 특히 가족기능은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는 외로움이 단순히 개인의 내면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 관계망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공동체의 쇠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르트무트 로자에 따르면, 종교는 단지 교리적 사유의 축적물이 아니라, 몸짓·공간·전통·의례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장치들의 총체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의례적 실천을 통해 인간이 타자로부터 말을 걸어옴을 감지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변화되어 가는 경험, 곧 공명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된다고 본다.[33] 종교는 단지 신앙의 체계가 아니라, 반복적인 만남과 의례, 상호부조, 초월적 의미를 통해 인간을 더 큰 공동체 속에 위치시키는 장치였다. 종교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고, 이러한 자원이 외로움을 낮추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 점을 잘 보여준다.[34] 종교 쇠퇴의 문제는 단지 신앙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개인에게 소속과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던 공동체적 장치의 약화를 뜻한다.

이 지점에서 근대적 주체의 불안이 발생한다.[35] 현대의 개인은 전통적 공동체의 억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자유를 지탱해 줄 안정적 관계망과 의미

32) 김옥수·백성희,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지지, 가족기능간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2003), p.430.

33) 하르트무트 로자, 『공명 사회』, 유영미 옮김 (서울: 니케북스, 2025), p.89.

34) S. Rote, T. D. Hill and C. G. Ellison, “Religious Attendance and Loneliness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53:1 (2013), pp.39-48.

35) 근대적 주체는 데카르트적 자기의식과 칸트적 자율성에 뿌리를 둔 근대 철학적 주체 개념으로, 전통 공동체 및 형이상학적 권위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에게서만 존재 근거를 찾아야 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구조를 상실했다. 과거에는 가족과 종교, 지역사회가 일정 정도 삶의 방향과 관계적 안전망을 제공했지만, 오늘날 개인은 자기 삶의 의미와 관계 유지의 부담을 점점 더 혼자 떠안아야 한다. 그 결과 근대적 주체는 자유로워졌지만, 더욱 불안정해졌고, 외로움은 바로 공동체 없는 자유가 낳는 실질적 비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사회는 공동체의 억압을 비판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해체 이후 무엇이 인간을 지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가족의 약화를 대체할 돌봄 체계, 종교 쇠퇴 이후의 의미 공동체, 지역사회 해체 이후의 생활 기반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에 대한 사회 전체의 미완 과제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Ⅲ.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

1. 상생의 관계 회복 원리

대순사상에서 상생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나 종교적 표어가 아니라, 상극의 질서 아래 누적된 원과 척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 질서를 열어가는 근본 원리로 이해된다. ‘해원’은 역사적·사회적 차원에서 축적된 원한과 억압, 불화의 구조를 푸는 것을 뜻하고, ‘상생’은 그러한 해원이 이루어진 이후 성립하는 조화롭고 호혜적인 관계 양식을 뜻한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갈등 이후의 사후적 화해가 아니라, 갈등을 생산해 온 관계의 토대 자체를 전환하는 사상적 원리이자, 생활철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윤리이다.[36] 이러한 해원상생의 논리는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 구조의 문제로 재해석하게

만든다. 외로움은 단순히 관계의 부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왜곡과 단절에 의해서도 심화되는 사회적 표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원상생은 외로움에 대한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외로움을 생산한 상극적 관계 구조를 비판하고 그것을 상생의 질서로 전환하려는 관계 철학적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해원상생의 연구에서는 일찍이 '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37]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해원상생이 단지 대립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새로운 공존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보은상생은 인간이 본래 타인과 공동체, 세계의 은혜 속에서 성립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상호 책임과 호혜의 관계를 지속 가능한 사회윤리의 차원으로 확장시킨다.[38] 이러한 점에서 상생은 개인 간 윤리, 공동체 윤리, 나아가 사회철학적 질서 원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외로움의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 역시 결국 "누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는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상생은 외로움의 구조를 비판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상적 매개로 기능한다.

또한 상생은 관계 회복을 단순히 감정적 친밀성의 복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해소만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 인간과 신명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처럼 관계를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외로움을 단지 인간관계의 협소한 실패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가 세계와 맺는 의미망 전체의 균열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현대 사회의 외로움이 단순한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존재론적 허무와 연결되기도 하는데,[39] 이런 점에서 해원상생은 존재론적 균열을 상생의 질서로 재조정하려는 원리

36) 『훈시』, 갑자(1984)년 5월 16일 훈시 (양력 1984. 6. 15.) 참조.

37) 잔스촹, 「대순사상의 인문정신과 인류평안의 이념」, 『대순사상논총』 21 (2013), p.220; 최동희, 「해원상생의 새로운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p.298.

38) 대순진리회, 『포덕교화기본원리(其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pp.8-10.

39) Tyler F. Stillman, et al., "Alone and Without Purpose: Life Loses Meaning Following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2009), p.689.

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상생은 외로움의 사회에 대해 “사람을 더 많이 연결하자”는 수준의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왜 오늘의 연결이 관계가 되지 못하는지, 왜 접촉의 증가가 외로움의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묻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대답을 상극적 관계 질서의 극복에서 찾는다.[40] 외로움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관계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관계의 원리를 바꾸는 일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상생은 현대적 외로움에 대한 대순사상적 응답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점에서 상생은 대순사상 관계 철학의 출발점이자, 이후 논의될 인존과 정신개벽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2. 인존과 인간 존엄의 재정립

상생이 관계 질서의 전환 원리라면, 인존(人尊)은 그러한 전환이 지향하는 인간 이해의 핵심이다. 대순사상에서 인존은 인간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로 보거나, 반대로 성과와 효율에 의해 평가되는 기능적 존재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본래적으로 존귀하며 우주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41] 특히, 하늘과 땅에 봉해졌던 천지신명이 인존시대에 인간에게 봉해진다는 신봉어인(神封於人) 개념은 인간 존엄의 근본적 재정립을 제안한다.

이는 인간을 수단이나 자원으로 환원하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존 형성 과정에서 인간을 우주심(宇宙心)에 기반을 둔 소우주로 파악하는 관점은, 인간 개인이 사회성을 내재화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가 지닌 한계, 즉 정신적 만남에 치우친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약화된 사회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이때의 인간은 사회적 전체 구도의 도

40) 『전경』, 공사 1장 3절, 예시 6절, 예시 10절.
41) 『전경』, 교법 2장 56절, 교법 3장 35절.

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며, 인존은 그 자체로 주체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42]

인존은 인간이 사회적 성취를 통해 비로소 존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물론 이 존귀함이 추상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행과 실천을 통해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인정의 형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인존은 개인주의적 자아 숭배와는 구별된 '관계적 존엄의 철학'으로 읽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존은 존재자 상호의 왕래와 유기적 연관"[43]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인간이 홀로 위대하여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넘어 만물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다.

외로움의 사회에서 인간은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립되는 것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상호 인정의 질서를 상실했기 때문에 고립된다. 타인은 경쟁자, 소비자, 고객, 평가자, 혹은 관리 대상으로만 나타나고, 그 결과 인간관계는 쉽게 기능적 관계로 축소된다. 인존은 이러한 기능주의적 인간관을 넘어 인간을 다시금 목적 그 자체로 사유하게 만드는 개념이며, 바로 이 점에서 외로움의 구조를 넘어서는 사상적 계기를 제공한다. 한편으로, 인존은 미래 사회에 대한 규범적 전망까지 내포한다. 오늘날 AI 기술과 금융자본이 인간의 판단과 관계를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존엄의 문제는 점점 더 추상적 윤리 담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인존은 인간을 다시 중심에 놓되, 지배적 중심이 아니라 관계적 책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따라서 인존은 외로움의 시대를 위한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며 어떤 사회가 인간다운 사회인가를 묻는 인간 가치 판단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42) 윤재근, 「인존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대순사상논총』 7 (1999), pp.333-339 참조.

43) 같은 글, p.328 참조.

3. 무자기-정신개벽과 공동체 회복

상생과 인존이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을 이루는 원리적·규범적 축이라면, 무자기-정신개벽은 이를 현실 속에서 작동시키는 실천의 축이다. 대순진리회는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을 통해 포덕천하, 구제창생, 나아가 지상천국 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44] 여기서 정신개벽은 무자기를 근본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본연의 양심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며,[45] 인간개조는 인간이 신에 상응하는 존재, 곧 지상신선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46]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순사상이 관계 회복을 제도 개편이나 외적 조직화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 내면의 근본적 전환과 결부시킨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현대 사회의 외로움 논의에서 특히 중요하다. 외로움은 공동체 해체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적 역량의 약화와도 연결된다. 타인을 신뢰하고, 척을 짓지 않으며, 자기기만을 넘어서 성실하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약화될 때, 공동체는 제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유대를 생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로움의 사회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것은 외적 연결망의 확대만이 아니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내면의 재형성이다. 무자기-정신개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기만과 분열을 넘어 관계적 진실성을 회복하는 내면 윤리의 형식으로 읽힐 수 있다.

무자기-정신개벽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회복의 문제와 연결된다.[47] 이는 외로움의 극복을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의 천성과 양심을 회복함으로써 타자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전체의 상생 질서를 다시 구성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외로움을 극복한

44) 『대순진리회요람』, p.14.
45) 같은 책, p.9, p.14.
46) 같은 책, p.17.
47) 『훈시』, 기사(1989)년 2월 10일 훈시 (양력 1989. 3. 17.)

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외로운 감정을 잠시 덜어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기만과 사심, 욕망 때문에 훼손된 관계를 정화하고 인간이 서로를 속이지 않으며 신뢰와 호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자기는 개인의 내면을 맑게 하는 수양의 원리인 동시에, 인간관계를 왜곡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공동체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무자기-정신개벽은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잇는 매개이며, 외로움의 사회를 넘어 양심과 상생에 기초한 미래 공동체를 사유하게 하는 대순사상의 실천철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경계해야 할 것은 무자기-정신개벽을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으로 읽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로움의 구조적 원인은 흐려지고, 모든 책임이 개인의 내면 수양으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강점은 오히려 구조와 주체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순환 관계로 파악한다는 데 있다. 상극의 질서는 단지 외부의 제도나 체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물신화의 논리가 인간의 자기이해와 타자 인식 속에 내면화됨으로써 재생산된다. 이런 점에서 자기기만(自欺)은 상극 구조가 개인의 의식 안에 각인되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이며, 무자기는 이 내면화된 상극의 논리를 자각하고 해체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제도적·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개혁을 운용하고 살아내는 주체가 여전히 경쟁과 소유의 논리에 붙들려 있다면 상생의 질서는 형식적 틀로만 남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역으로 정신개벽을 통한 주체의 내적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해원상생이라는 사회적·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적 각성에 머무르고 상극의 구조 자체는 유지될 것이다. 요컨대 상극의 질서를 해원상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전과 그 전환을 감당할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실천적 요청은 단순히 병존하는 두 과제가 아니라, 서로를 조건 짓는 하나의 순환적 과정이다. 구조 전환은 그것을 살아낼 주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주체 전환은 다시 그것이 뿌리내릴 구조

적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따라서 무자기-정신개벽은 구조를 무시한 내면주의가 아니라, 구조 변동의 조건이자 결과로서 인간 전환을 강조하는 관계 철학적 실천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Ⅳ. 외로움의 사회에 대한 대순사상의 응답

1. 단절된 사회를 넘어 : 상생의 윤리

현대화와 개인화의 진전 속에서 개인은 전통적 소속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지속적 지지와 돌봄의 기반 또한 약화되었다. 혼자 사는 삶의 증가는 자유의 확대라는 측면도 지니지만, 관련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현대적 외로움의 확산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을 지적한다.[48] 이는 외로움이 단지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소속과 상호 돌봄의 기반이 약화할 때 심화하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종교공동체의 약화 역시 이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찰스 테일러는 과거 선조들의 사회적 유대와 종교적 신성은 분리될 수 없이 얽혀 있었으며,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 의례를 통해 악한 영에 맞서고 공동의 안녕과 정통성을 유지하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회적 삶을 영위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현대의 자아는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강하게 의식하면서 자연적·사회적 주변 환경 전체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원자화를 초래하고 과거의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과 타인과의 긴밀한 연

48) 김현수·김가빈, 「1인 가구의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30-1 (2026); 강선경·서상형·허보연, 「청년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절망의 매개효과 및 정신적 웰빙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과 세계』 8-2 (2026).

결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49]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 해체는 단지 과거의 전통적 질서가 약화되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이 타인과 연결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을 말한다고 해서 전통 공동체로의 단순한 회귀를 주장할 수는 없다. 과거의 공동체 역시 폐쇄성과 위계, 배제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복고적 회귀가 아니라, 해체된 공동체 이후의 시대에 어떤 윤리로 새로운 관계를 구성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생의 윤리가 중요해진다. 해원상생은 원과 척이 누적된 관계를 근원적으로 풀고, 그 위에서 새로운 상생의 관계를 세우는 원리이다. 이는 상생이 단순히 갈등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원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새로운 관계 질서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상생 윤리는 과거의 공동체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단절을 해소한 이후의 새로운 공동체 윤리를 사유하게 만드는 개념이다.

특히 보은상생은 공동체 해체와 고립의 시대에 상생의 윤리를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핵심 원리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만으로 존재하는 자율적 주체인 것처럼 호명되지만, 실상 인간은 타인의 돌봄, 사회적 제도, 역사적 유산, 자연과 세계의 조건 속에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이러한 상호의존의 사실을 은폐한 채, 모든 성과를 개인의 능력으로, 모든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한다. 그 결과 타인에 대한 감사와 책임의 감각은 약화되고, 공동체는 연대의 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결합체로 축소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은상생은 인간이 이미 수많은 은혜 속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고립된 개인을 다시 관계의 윤리 속으로 이끈다.[50] 보은은

49)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41-43.
50) 대순진리회, 『포덕교화기본원리(其二)』, pp.8-10.

단순한 도덕적 보답이나 정서적 감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타자와 무관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타인과 세계의 도움 속에서 형성되어 온 존재임을 인정하는 존재론적 각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타인을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상생의 주체로 바라보게 만든다. 결국 보은상생은 해체된 공동체를 과거의 폐쇄적 질서로 복원하려는 논리가 아니라, 상호 의존성과 책임의 자각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호혜성을 구성하려는 윤리적 원리이다. 이런 점에서 보은상생은 외로움의 사회를 넘어, 단절된 개인들이 다시 서로의 삶을 떠받치는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하는 실천적 기반이 된다.

상생 윤리가 공동체 해체와 단절된 사회에 대한 응답이 되는 이유는, 첫째 공동체를 단순한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질서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 옆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외로움의 사회에 필요한 것도 결국 관계의 수량 증가가 아니라, 원과 척을 줄이고 상호 유익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윤리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원한, 불신, 배제, 냉소가 아니라 신뢰, 화해, 상호 유익의 윤리에 의해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네가 내게 의지해도 되고, 나도 너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만 공동체는 존립할 수 있다.[51] 상생은 바로 이러한 관계 원리를 제공한다. 대순사상은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기보존에 몰두하는 개체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살려 주는 관계적 존재로 이해한다. 특히 대순사상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것', '척을 짓지 않는 것',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 등을 제시하는데,[52] 이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상호적 존재로 보는 인간관을 함축한다. 그리하여 상생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구조를 화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평화 이념이자 일상적 인간관계와 공동체 윤리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53]

---

51) 이세훈, 『외로움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서울: 시크릿하우스, 2025), p.95.
52) 『대순진리회요람』, pp.19-20.

둘째, 상생 윤리는 상호존중과 예절에 기반한 윤리 실천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륜을 천륜으로 확장시킨다. 『훈시』에는 “인륜이란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말한다. 인륜이 천륜이고 천륜이 인륜이다. 이 관계에서 예의가 없으면 안 된다.”[54]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인간이 사람 사이에서만 관계 맺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연관되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관계망 속의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은상생은 그러한 존엄이 관계 속에서 감사, 책임, 호혜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요청하는 윤리 원리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단순한 소속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진 빚과 은혜를 자각하고 그것을 갚아 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생은 외로움의 사회를 심화시키는 무관심과 단절의 질서를 넘어, 상호돌봄과 신뢰의 관계망을 재구성하는 실천적 대안이 된다.

셋째, 상생 윤리는 공동체 회복을 감상적 친밀성의 복원이 아니라, 외로움을 산출하는 단절의 구조를 넘어서는 규범적 질서의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 자체보다도, 서로 다른 세대, 계층,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상호 불신과 배제 속에 머무를 때 심화된다. 이 점에서 해원상생은 외로움을 개인의 정서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원과 척이 누적된 관계 질서의 위기로 파악하게 한다. 또한 그것은 동일성에 기초한 폐쇄적 공동체로의 회귀가 아니라, 차이와 긴장을 조정하면서도 상호 신뢰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 윤리를 지향한다. 해원상생의 윤리는 상극의 시대 이후 어떤 규범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미래지향적 공동체 윤리로 이해될 수 있다.

---

53) 『훈시』, 계유(1993)년 3월 29일 격려사 (양력 1993. 4. 20.), “주체적이고 도덕적이며 공동체적인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만이 혼탁한 상극의 세계를 상생의 세계로 이끌어갈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54) 『훈시』, 신미(1991)년 9월 23일 훈시 (양력 1991. 10. 30.).

2. 경쟁하는 인간을 넘어 : 인존의 철학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신자유주의적 경쟁 질서와 깊이 맞물려 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에게 자유와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를 자기 자신을 경영해야 하는 주체로 재구성한다. 이때 타인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비교하고 추월해야 할 경쟁자이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사회적 연결감을 약화시키고 경쟁 인식을 강화하며, 그 결과 외로움과 낮은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55] 이는 외로움이 단지 친밀한 관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질서 속에서 구조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사회에서 학업, 직장, 소비, 자기 계발, 사회적 평판의 영역에서 개인은 늘 평가되고 서열화되며, 그 결과 관계는 상호 신뢰의 장이 아니라 자기 성과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바뀐다.[56] 외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심화된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네트워크 속에 있어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질 때, 인간은 고립감을 넘어 존재론적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 경쟁사회의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가 나의 존엄을 확인해 주는 상호 인정의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57]

이 지점에서 인존은 경쟁사회에 대한 대순사상적 응답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다. 첫째, 인존은 인간을 능력, 생산성, 시장가치에 따라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존귀하며 세계 변혁의 주체가 될

55) Karim Bettache, Chi-yue Chiu and Peter Beattie, “The merciless mind in a dog-eat-dog society: Neoliberalism and the indifference to social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34 (2020), pp.220-221.

56) 이종원,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윤리적 문제」, 『장신논단』 54-3 (2022), pp.163-165 참조.

57) 김현수・김가빈, 앞의 글, p.69, “전 세대에 걸쳐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을 완화하는 주요 변수임이 확인된다.”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신봉어인의 실현이 인간을 인존으로 변화시킨다는 설명은, 인간이 단순한 생존 단위나 기능적 자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존은 경쟁의 현실을 부정하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경쟁의 논리가 인간 존엄을 침식할 때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외로움을 개인의 적응 실패나 사회성의 부족으로 환원하지 않도록 만든다. 외로움은 때로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와 평가 속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될 때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존은 외로움의 문제를 관계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훼손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사유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둘째, 인존은 시장이나 능력 평가에 바탕을 둔 제도와 문화가 인간을 수단화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인간관의 재정립이다.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서도 인간이 성과 이전에 존엄한 존재라는 전제가 유지될 때, 타인은 추월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 타자'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외로움의 대안 역시 단순한 친교의 확대나 관계 수의 증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인존은 경쟁이 인간을 고립된 자기관리의 주체로 몰아가는 질서를 완화하고,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존의 철학은 경쟁을 상생으로 즉시 대체하는 처방이라기보다, 경쟁을 절대화하는 시대에 인간 존엄을 지키고 외로움의 구조적 심화를 억제하는 사상적 방파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인존은 외로움에 대한 사회철학적 관점을 바꾸게 만든다. 현대 사회의 외로움을 개인의 사회성 부족이나 심리적 미성숙의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인존의 관점에서 보면 외로움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 사회가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극복은 단지 관계를 많이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다. 미래 지향적으로 말하면, 인존은 교육, 노동, 복지, 공동체 윤리 전반에서 인간을 효율의 단위가 아니라 존엄의 주체로 다시 세

우는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인존은 외로움의 사회를 넘어서는 대안적 인간 이해이자, 관계 회복의 제도적 상상력을 여는 사상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3. 소외된 마음을 넘어 : 무자기와 정신개벽

현대 사회의 외로움은 인간관계가 점차 물화되고 수단화되는 과정과도 깊게 연결된다. 물신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효용과 교환가치에 따라 평가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사랑, 우정, 공동체, 심지어 돌봄조차 시장의 언어와 성과의 논리로 번역될 때, 인간관계는 지속적 헌신과 상호성의 공간이 아니라 계산과 교환의 공간이 된다. 최근 연구들이 외로움의 상품화, 관계의 상업화, 디지털 고립의 시장화 등을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대적 조건을 반영한다.[58] 외로움은 더 이상 단지 개인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관리되고 소비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타인에게조차 "쓸모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관계는 유용성을 증명하는 동안만 유지되고, 효율이 떨어지면 쉽게 해체된다. 그 결과 외로움과 인간소외는 내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결합한다.[59] 물신주의가 낳는 외로움은 바로 이런 점에서 심각하다. 그것

58) Lucija Mihaljević, "Rethinking Solitude: Media and the Commodification of Digital Isolation," *Sociologija i prostor* 62:3 (2024), pp.537-538; 이진호, 「디지털 기술과 인간 존재의 재구성 : 상품화를 넘어선 관계적 존재론」, 『현대유럽철학연구』 79 (2025), pp.191-197. 황정산, 「상품화된 몸과 흔들리는 자아들」, 《상상인》 14 (2025), pp.120-135.

59) Iris Murdoch, *The Sovereignty of Goo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pp.27-33. 머독에게 사랑은 추상적 선의나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개별자를 개별자로 알게 되는 인식 행위이다. 그리하여 상대를 역할, 효용, 관계적 편의로 환원하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실재로 정확히 바라보는 도덕적 행위를 통해 진정한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세계에서, 인간 스스로도 자신을 교환 가능한 단위로 경험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때 외로움은 단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나를 온전한 인격이 아닌 기능적 대상으로만 대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심화된다. 그러기에 "타자를 진정으로 대면해야 하며, 나의 편의를 위한 대상이 아닌, 고유한 삶을 지닌 존재로 존중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60]

대순사상에서 물신주의와 인간소외에 대한 응답은 무자기와 정신개벽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자기(無自欺)는 외로움의 문제를 단지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이미 왜곡된 상태로부터 다시 보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하고 관리하며, 타인의 인정과 시장의 평가에 맞추어 스스로를 구성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자기 내면의 진실을 은폐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 역시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계산과 이미지의 교환으로 변질시키기 쉽다. 이때 무자기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태도, 곧 자기기만과 허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수양적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자기는 외로움의 대안을 단순히 인간관계의 수를 늘리는 데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짓 없이 대면하고 타인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면의 토대를 회복하는 데서 찾게 만든다.[61]

둘째, 정신개벽은 물질 중심의 가치 질서와 효율 중심의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근본적 전환의 원리라는 점에서, 외로움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응답이 된다. 인간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질서에서는, 관계조차도 유용성과 교환 가능성에 따라 조직되기 쉽고, 그 결과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깊이 고립된다. 이 점에서 정신개벽은 단순한 심성 수양이나 위안의

60) 이세훈, 앞의 책, p.61.

61) 『훈시』, 을축(1985)년 9월 6일 훈시 (양력 1985. 10. 19.) "진실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의 참된 마음씨니, … 인간의 진실한 천품성(天稟性)이니, 이 천품성이 인간의 윤리 도덕의 바탕이 된 것이다."

언어가 아니라,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를 근본에서 다시 묻게 하는 사상적 전환이다. 따라서 외로움의 극복은 관계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과 관계를 효율과 소비의 논리로만 보지 않는 가치 질서의 전환, 곧 정신개벽의 방향 속에서 비로소 모색될 수 있다.

셋째, 무자기와 정신개벽은 함께 외로움의 사회를 넘어서는 거시적 규범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무자기가 자기기만을 걷어내고 진실한 자기 대면의 가능성을 연다면, 정신개벽은 그러한 내면의 전환을 사회적·문명사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관계 질서를 요청한다. 앞으로 인간관계는 더 많은 플랫폼,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효율의 이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외로움 역시 더욱 은폐된 방식으로 심화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의 대안은 일시적 치유 프로그램이나 감정 관리 기술에 머물 수 없으며, 인간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무자기와 정신개벽은 인간을 상품이나 기능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과 존엄한 관계성을 지닌 존재로 다시 세우고, 교육·노동·돌봄·공동체 윤리 전반에서 외로움을 낳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유의 토대가 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의 외로움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정서적 결핍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구조적 질서가 산출한 관계 파탄의 결과로 고찰하였다. 대순사상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완성하는 주체로 이해하며, 상생, 인존, 무자기-정신개벽 등의 개념을 통해 현대사회의 원자화된 인간관을 비판

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유의 틀을 제시한다.

‘상생’은 관계 회복의 핵심 원리이다. 외로움의 사회는 관계의 양적 부족만이 아니라 관계 내부에 누적된 불신, 상처, 비교, 원망의 구조로 인해 심화된다. 따라서 관계 회복은 단순한 연결망 확대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해 온 원과 척을 해소하고 상극의 질서를 상생의 질서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해원상생은 표면적 화해나 감정적 위로를 넘어, 관계의 질적 전환을 지향하는 윤리적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 보은상생은 인간이 이미 타인과 세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단절된 개인을 다시 호혜와 책임의 공동체 윤리로 이끄는 실천적 계기를 제공한다. ‘인존’은 인간을 성과와 효율의 기준으로 환원하는 능력주의적 인간관에 맞서,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존엄한 주체로 재정립하는 규범적 원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외로움의 사회에서 인간이 왜 쉽게 대체 가능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전락하는가를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 존엄의 기준을 회복하게 하는 철학적 토대가 된다. ‘무자기-정신개벽’ 역시 외로움의 사회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외로움의 원인을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였지만, 그 구조를 내면화한 인간의 변화 없이는 관계의 실질적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대인은 경쟁과 비교, 자기 과시 혹은 자기 은폐의 질서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왜곡된 방식으로 대하게 된다. 무자기는 자기기만을 버리고 진실한 자아를 회복하려는 태도이며, 정신개벽은 상극의 질서를 내면화한 인간이 상생의 존재로 전환되는 실천적 각성의 과정이다. 따라서 외로움의 극복은 구조 개혁과 더불어 주체의 내면적 전환을 함께 요청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로움을 개인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철학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대순사상의 핵심 개념들을 현대 사회의 외로움이라는 문제와 연결함으로써, 종교사상 연구가 교리 해설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 사회 비판과 윤리적 대안 제시에 기

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상생을 관계 회복의 원리로, 인존을 인간 존엄의 규범으로, 무자기-정신개벽을 주체 변혁의 실천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적 구조를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도 지닌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철학적 해석에 기초한 이론 연구로서, 대순사상의 관계 철학이 실제 공동체 현장에서 외로움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외로움의 양상이 세대, 계층, 성별, 디지털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대순사상의 개념들이 다른 종교 및 철학 전통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비교 작업 역시 충분히 심화하지 못했다. 또한 치열한 경쟁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난민, 여성 등 소외계층에 관한 관계 철학의 적용도 시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체적 사례 연구, 디지털 사회에서의 상생 윤리 탐색, 세대별·계층별 외로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비교철학적 검토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전경』

『대순진리회요람』

『도전 훈시』

『포덕교화기본원리(其二)』

강선경・서상형・허보연, 「청년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절망의 매개효과 및 정신적 웰빙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과 세계』 8-2, 2026. https://doi.org/10.22743/kwr.2026.8.2.943

김만권, 『외로움의 습격』, 고양: 혜다, 2024.

김민수,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의 물화 이론적 성격 해명」, 『철학』 165, 2025. https://doi.org/10.18694/KJP.2025.11.165.55

김성아・강예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수시) 2025-07,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https://doi.org/10.23060/kihasa.b.2025.07

김옥수・백성희,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지지, 가족기능간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2003. https://doi.org/10.4040/jkan.2003.33.3.425

김현수・김가빈, 「1인 가구의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30-1, 2026.

다이앤 엔스, 『외로움의 책』, 박아람 옮김, 서울: 책사람집, 2025.

박민진・김성아,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2022. https://doi.org/10.15709/hswr.2022.42.4.127

서영석・안수정・김현진・고세인,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20. https://doi.org/10.22257/kjp.2020.6.39.2.205

윤재근,「인존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대순사상논총』7, 1999. https://doi.org/10.25050/jdaos.1999.7.0.9

이상호・김성옥,「고립의 시대, 사회적 진단과 불교적 해법」,『동아시아불교문화』57, 2023.

이세훈,『외로움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서울: 시크릿하우스, 2025.

이승훈,「디지털 시대의 외로움, 인문 정신으로 잇기」,『공공사회연구』14-1, 2024. https://doi.org/10.21286/jps.2024.02.14.1.237

이완정・박규상,『외로움을 소비하는 사회』, 고양: 더디퍼런스, 2025.

이정은,「외로움과 대중 매체 : 미국 사회의 X세대와 MZ세대의 정치 문화에 대한 고찰」,『시대와 철학』36-1, 2025. https://doi.org/10.32432/KOPHIL.36.1.3

이종원,「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윤리적 문제」,『장신논단』54-3, 2022. https://doi.org/10.15757/kpjt.2022.54.3.006

이진호,「디지털 기술과 인간 존재의 재구성 : 상품화를 넘어선 관계적 존재론」,『현대유럽철학연구』79, 2025. https://doi.org/10.20974/dasein.2025..79.173

임명성,「뉴 노멀 시대에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성 요인에 대한 탐구」,『경영교육연구』35-5, 2020. https://doi.org/10.23839/kabe.2020.35.5.59

임윤서,「AI 시대 청년의 외로움 드러내기 : 포토보이스를 통해 본 질적 탐구」,『인간・환경・미래』33, 2024. https://doi.org/10.34162/hefins.2024..33.006

잔스촹,「대순사상의 인문정신과 인류평안의 이념」,『대순사상논총』21, 2013. https://doi.org/10.25050/jdaos.2013.21.0.199

전용호・최경석,「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 모색」,『기독교사회윤리』61, 2025. https://doi.org/10.21050/CSE.2025.61.04

최동희,「해원상생의 새로운 이해」,『대순사상논총』4, 1998. https://doi.org/10.25050/jdaos.1998.4.0.8

하르트무트 로자,『공명 사회』, 유영미 옮김, 서울: 니케북스, 2025.

황정산,「상품화된 몸과 흔들리는 자아들」,《상상인》14, 2025.

Adrian Costache, “On solitude and loneliness in hermeneutical philosophy,” *META: Research in Hermeneutics, Phenomenology, and Practical Philosophy* 5:1, 2013.

Karim Bettache, Chi-yue Chiu and Peter Beattie, “The merciless mind in a dog-eat-dog society: Neoliberalism and the indifference to social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34, 2020. https://doi.org/10.1016/j.cobeha.2020.06.002

Charles Taylor,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https://doi.org/10.4159/9780674237117

_____, *A Secular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https://doi.org/10.4159/9780674044289

David Harvey,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https://doi.org/10.1093/oso/9780199283262.001.0001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San Diego,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3.

Iris Murdoch, *The Sovereignty of Goo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https://doi.org/10.4324/9781315887524

J. Dosmagambetova, R. Imanzhusip, S. Turarov and U. Aimbetova, “The Problem of Loneliness in Religious Studies and Philosophy,” *Eurasi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6:4, 2023. https://doi.org/10.26577//EJRS.2023.v36.i4.r4

Julia C. Becker, Lea Hartwich and S. Alexander Haslam, “Neoliberalism Can Reduce Well-Being by Promoting a Sense of Social Disconnection, Competition, and Loneli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0:3, 2021. https://doi.org/10.1111/bjso.12438

Keith D. M. Snell, *Spirits of Community: English Senses of Belonging and Loss, 1750-2000*,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 https://doi.org/10.5040/9781474268875

Khalid Abdulle, “The Cost of Loneliness in the Pursuit of Neoliberalism,” *Carleton Undergraduate Journal of Science* 4:1, 2025. https://doi.org/10.22215/cujs.v4i1.4998

Lauren Dwyer, “Loneliness by Design: The Structural Logic of Isolation in Engagement-Driven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2:9, 2025. https://doi.org/10.3390/ijerph22091394

Lucija Mihaljević, “Rethinking Solitude: Media and the Commodification of Digital Isolation,” *Sociologija i prostor* 62:3, 2024. https://doi.org/10.5673/sip.62.3.6

Noreena Hertz, *The Lonely Century: How to Restore Human Connection in a World That's Pulling Apart*, New York: Currency, 2021.

Richard Booth, “Existential Loneliness: The Other Side of the Void,”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ersonal Studies* 16:1, 1997.

Ruth Rebecca Tietjen and Rick Anthony Furtak, “Loneliness, Love, and the Limits of Language,”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59:3, 2021. https://doi.org/10.1111/sjp.12431

S. Rote, T. D. Hill and C. G. Ellison, “Religious Attendance and Loneliness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53:1, 2013. https://doi.org/10.1093/geront/gns063

Sue E. Williams, Bonnie Braun,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 Private Problem, a Public Issue,”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111:1, 2019. https://doi.org/10.14307/JFCS111.1.7

Tyler F. Stillman, Roy F. Baumeister, Nathaniel M. Lambert, A. Will Crescioni, C. Nathan DeWall and Frank D. Fincham, “Alone and Without Purpose: Life Loses Meaning Following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2009. https://doi.org/10.1016/j.jesp.2009.03.00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 3.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 10. 17.

통계청 보도자료, 「2024 Stat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2024. 12. 12.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on the Heal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on and Communit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UK Government,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 *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 Report of the WHO 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内閣府孤独・孤立対策推進室, 「孤独・孤立の実態把握に関する全国調査(令和6年)調査結果のポイント」, 2025. 4. 25.

■ Abstract

The Relational Philosophy of Daesoon Thought in a Society of Loneliness

Choi Chi-bong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Twenty-first-century society is a "society of loneliness." As the mutually conflicting structures of neoliberal competition, fetishism, and community disintegration deepen, loneliness has come to signify more than mere solitude—it manifests as the loss of a place to be recognized by others and a ground on which to belong within the world. This study locates the cause of contemporary loneliness in the intensification of these three layers of conflicting social structure and examines the relational-philosophical resources within Daesoon Thought that correspond to each, thereby exploring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transforming the order of mutual conflict into an order of mutual beneficence.

Neoliberal competition reduces human beings to units of performance and efficiency, turning others into objects of rivalry rather than partners in coexistence. In response, Human Nobility critiques meritocratic evaluations of human worth and restores the inherent dignity of existence itself. Fetishism converts human relationships into exchange value, instrumentalizing relationships and

deepening self-deception. In response,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and Re-creation of the inner-spirit propose that an inner transformation—the recovery of conscience—rather than institutional reform alone, is the precondition for restoring relationships. Community disintegration fragments individuals through the severance of relationships and the accumulation of grievance and resentment. In response, *Haewon-sangsaeng*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and *Boeun- sangsaeng* (the Grateful Reciprocation of Favors for Mutual Beneficence) transform an adversarial order into a reciprocal one, resolving accumulated grievances and restoring an ethics of inter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In this way,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Injon* (Human Nobility), *Mujagi-Jeongsin-gaebyeok*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and Re-creation of the Inner-spirit), and *Sangsaeng* (Mutual Beneficence)—three relational-philosophical resources within Daesoon Thought—function as structural alternatives corresponding to the three layers of conflicting social structure: neoliberal competition, fetishism, and community disintegration.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solution to loneliness lies not in the mere expansion of connectivity but in reconceiving human beings as fundamentally relational and in transforming the order of mutual conflict into an order of mutual beneficence, thereby showing that Daesoon Thought can offer both a critical diagnosis of and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problem of loneliness in contemporary society.

Keywords: Society of Loneliness, Daesoon Thought, Relational Philosophy, Ethics of Mutual Beneficence, Human Nobility,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논문투고일 : 2026.07.17. 심사완료일 : 2026.09.02. 게재확정일 : 2026.09.28.